

제15차 한-독 양자통계협력회의 참석 결과 보고

2014. 12.

목 차

I. 개요	1
II. 회의 결과	3
1. 독일 부청장 및 국제협력과장의 환영인사	3
2. 본회의	6
□ 개요	6.
□ 회의주제별 요약	6.
<회의1> 경제통계의 모집단 구축 및 유지방안	6
<회의2>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배달·인터넷소매통계	9
<회의3> 독일통계청의 운영효율화 방안	11.
<회의4> 양국 통계청 소개	13
<회의5> 향후 국제협력방안 논의	14
<회의6> 지방통계활동 소개	15
III. 문화체험	18
VI. 평가 및 시사점	19
<참고1> 독일 통계청 개요	21.
<참고2> 독일 통계청장	24
<참고3> 한-독 양자회의 현황	25
<참고4> 독일과의 협력사업 개요	26
<참고5> 독일 주요 개황	27.

※ 별도첨부. 회의자료

I**개 요**

1. 일 시 : 2014. 11.16(일) ~ 22(토) (* 출국 : 11.16(일), 귀국 : 11.22)
 ○ 11.17(월)~ 20(목) : 실무회의 및 작센주통계청 방문
2. 장 소 : 독 일 통계청(Destatis, 비스바덴),
 작센주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Saxony, 카멘츠)
3. 대표단(4명)

	직 위	성 명
단 장	경제통계국장	최 성 욱
단 원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장	김 대 호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장	최 정 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이 윤 정

4. 회의 주제

발표일시	회의 주제	해당부서
11. 17(월)	경제통계의 모집단 유지 및 구축 방안	산업통계과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과
11. 18(화)	독일통계청 부청장과의 환담	대표단
	독일통계청의 운영효율화 방안	대표단
	양국 통계청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국제협력담당관실
11. 20(목)	독일의 주정부통계청 소개	대표단
	동독의 통계청 통합 과정	대표단
	한국 통계청 소개	국제협력담당관실

<한-독 순차통역, Kyung Mi Daphnee HABERMANN, 독일 측에서 제공>

5.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1US\$ = 1,114원 기준('14.11.15))

예산과목		소요액	세부 사항
국제통계 협력강화 (7031-303)	국외여비 (220-02)	18,674	- 체 재 비 : 5,216 - 항 공 요 금 : 13,278 - 준 비 금 : 180
	업무추진비 (240-01)	1,051	- 정 액 경 비 : \$500 - 연회비·선물비 : \$443
합계			19,725

6. 세부 일정

일 시		일 정	장 소
11.16 (일)	12:50-16:35	인천공항→프랑크푸르트 공항(OZ541)	-
	16:35-17:10	대표단 공항 영접	프랑크푸르트공항
	17:20-18:00	프랑크푸르트 공항 →비스바덴	-
11.17 (월)	09:00-09:30	호텔→독일통계청	비스바덴
	09:30-10:00	국제협력과장의 대표단 환영(DESTATIS)	독일통계청
	10:00-12:30	경제통계분야 모집단 구축 및 유지방법(KOSTAT)	"
		기업등록부 구축 방법(DESTATIS)	"
		도소매·음식숙박업 통계 관련 표본 유지방법 (DESTATIS)	"
	12:30-13:40	점심식사	"
	13:40-16:00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소개(KOSTAT)	"
배달 및 인터넷소매 통계(DESTATIS)		"	
11.18 (화)	08:40-09:00	호텔→독일통계청	-
	09:00-09:30	독일부청장 예방	독일통계청
	09:30-12:00	통계청의 운영 효율화 방안(DESTATIS)	"
	12:00-13:30	독일 부청장 오찬	비스바덴
	14:00-16:00	한국통계청 소개(KOSTAT)	독일통계청
		독일통계청과 주지방통계청 소개(DESTATIS)	"
11.19 (수)	08:30-15:00	비스바덴→드레스덴	-
	16:00-18:00	호텔 체크인 등	드레스덴
	18:00-20:00	만찬	"
11.20 (목)	09:00-10:00	호텔→작센주지방통계청	-
	10:00-14:00	주정부통계청 소개(작센주통계청)	작센주통계청
		동독의 통계청 통합 과정(작센주통계청)	
		한국통계청 소개(KOSTAT)	
	14:00-15:00	작센주지방통계청→드레스덴	-
15:00-18:00	문화체험	드레스덴	
11.21 (금)	11:00-12:00	호텔→드레스덴공항	-
	14:05-15:15	드레스덴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
	18:30-	프랑크푸르트공항 →인천공항	-
11.22 (토)	-12:40	인천공항 도착	-

II

회의 결과

1. 독일 부청장 및 국제협력과장의 환영 인사

□ 개 요

○ 일 시

- '14. 11. 17(월), 09:30 - 10:00 (국제협력과장의 환영)
- '14. 11. 18(화), 09:00 - 09:30 (부청장 예방)

○ 장 소 : 독일통계청 회의실

○ 참석자

우리 청	최성욱 단장, 김대호 과장, 최정수 과장, 이윤정 주무관
독일 통계청	Mr. Dieter SARREITHER 부청장(Vice-president)
	Mr. Bernd STOERTZBACH 국제협력과장(Head of Division)
	Ms. Simone KOLL 국제협력과 사무관(Head of Section)
	Ms. Christine KRONZ 국제협력과 주무관(Referentin)
	Ms. Kyung Mi Daphnee HABERMANN 통역 등

□ 환담 주요 내용

○ 독일 측

- (환영인사) '97년 이래로 오랜 양자관계를 지속 중인 한-독의 제15차 양자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을 환영
- (공동협력사업) 몽골 국가통계시스템 강화사업(MONSTAT, '10-'14, 최근 종료), 카자흐스탄 통계역량강화사업(KAZSTAT, '12-'16)등을 통하여 양국은 성공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우리 청은 IT분야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 수행 중

- **(의제)** 이번 회의 의제는 어렵고도 중요. 특히 OECD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 독일통계청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양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 **(주지방통계청 방문)** 작센주정부통계청에서는 주정부통계청 및 동독의 통계청 통합과정에 대한 소개 예정. 통일 관련 경험 등의 공유가 양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 **(마무리)** 대표단이 방문하게 되는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거의 파괴되었으나 현재 다시 복구된 아름다운 도시. 이번 회의가 양국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 우리 청

- **(감사인사)** 우리 청 대표단에 대한 독일 통계청의 환대에 감사
- **(양자관계 등)** 한-독 양국은 '97년 양자 협정 체결 후 오랜 우호 관계를 지속 중이며, 특히 독일의 통일 경험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
- **(한국 통계청의 발전)** 우리 청은 과거 일본 통계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90년대 이후 미국·호주·독일·네덜란드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통계 선진국으로 발전
- **(의제)** 이번 회의 의제인 경제통계 모집단,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등의 논의가 상호 이해 확대 및 역량강화에 일조하기를 기대

- (우호관계) 우리 청과 독일은 카자흐스탄 통계역량강화사업(KAZSTAT) 등 공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우호관계가 지속되길 희망
- (마무리) 이번 회의를 통한 독일 통계청의 개관, 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우리 청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독일 통계청에 다시 한 번 감사



Mr. Sarreither(독일 부청장)와 한국대표단 기념촬영



선물 교환 중인 대표 단장과 독일 부청장



연방통계청 입구에 게시된 독일의 환영 메시지

2. 본 회의

□ 개 요

- 일 시: '14. 11. 17(월)~18(화), 20(목)
- 장 소: 독일 통계청 회의실(B03.104, A12.208), 작센주통계청 회의실
- 진행방식: 안건별 담당자 발표 후 질의 및 답변

□ 회의주제별 요약

<회의 1> 경제통계의 모집단 구축 및 유지방안

○ 발 표 자

- 김대호 과장 (산업통계과)
- Ms. Katja von Exchwege (독일통계청 기업등록부관리과)
- Mr. Elmar Wein (독일통계청 유통·음식·숙박·관광통계과)

○ 발표 내용

- **경제통계분야 모집단 구축 및 유지방법(우리 청)**
 - 모집단 구축 개요,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구축방법, 등록모집단 구축방안,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표본추출방법
- **기업등록부 구축 방법(독일)**
 - 기업등록부의 역할 및 기능, 구축 배경(EU, 정치적 수요 등), 행정자료, 주요 수집정보, 분석결과 및 개선과제
- **도소매·서비스업 통계 관련 표본 유지방법(독일)**
 - 추출틀 및 표본설계, 연동표본체의 개요, 방법, 과정 및 환류 방법, 문제점·현황 및 개선과제 등

○ 주요 관심사 및 토의 내용

- 경제통계분야 모집단 구축 및 유지방법

- (등록모집단 구축) 독일은 우리 청의 행정자료 기반 등록모집단 구축 계획에 관심을 가졌으며, 우리 청은 2018년 이후 등록모집단을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

- 기업등록부 구축 방법

- (정보 공개) 2014년에 연방-주정부통계청 간 DB를 연결하였고, 기업등록부의 개별기업 자료는 One-way 정책에 따라 대외 미 제공
- (행정자료와의 연계 및 구축) 각종 행정자료가 자동 연계되지는 않으며, 품질관리 등의 이유로 행정자료 구축에 약 1년 6개월 소요
- (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 연방통계청 기업등록부과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등록부 구축 관련 인력은 총 약 200여명. 연방에서는 1)기준 설정 및 개념 정의, 2)방법론의 정의, 3)독일 전역에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등을 실시

<참고1. 기업등록부 구축방법의 주요 발표 내용>

- (가이드 라인) 독일의 기업등록부는 E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
* Regulation (EC) No. 177/2008 및 기업등록부 매뉴얼
- (행정 자료) 월별 연방노동청자료, 월별 VAT, 연방국세청·상공회의소 자료 및 EGR(EuroGroupsRegister) 등의 행정자료를 수집
- (주요 수집 정보) 이름, 주소, ID, 지역코드,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생멸정보, 소유주 및 지배집단, 조사과정 자료 등
- (개선 과제) 행정자료와 통계조사단위의 불일치, 다양한 자료의 통합, 행정자료와 통계의 개념·산업분류 차이 등

- 독일 통계청의 도소매·서비스업 통계 관련 표본 유지방법

- (전환 경험) 연동표본전환에는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기획자가 1)표본설계 및 2)소프트웨어 개발을 기획하고 3)방법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 현재는 약 20여명의 과원이 업무 분업
- (구조통계와 동향통계) 구조·동향 통계의 표본은 대규모 사업체인 경우 대다수 중복되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연동표본 전환 후 동향통계와 구조통계의 차이는 0.7%p로 통계의 정확도가 개선

<참고2. 도소매·서비스업 통계 표본 유지방법 주요 발표 내용>

- (표본추출틀 및 개편주기) 도소매·서비스 통계는 1)기업등록부 및 2)2012년 내수유통통계결과를 지역·산업분류·매출 등으로 층화하여 표본추출하며, 매6년마다 표본 개편 실시
- (표본유지방식: 연동표본) 독일은 통계의 정확성 제고,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정표본에서 연동표본*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 전후 비교 결과 구조통계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증가)하였으나, 동향통계에서는 차이 미 발생
 - * '09년부터 연동제로 전환하였고 표본 유지기간은 3년~6년으로 운영
- (통계결과의 환류) 구조·동향통계결과(산업분류, 매출액 등)는 추출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기업등록부로 환류
- (추진과제 및 향후 계획) 독일은 현재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표본추출틀의 업데이트(산업분류, 시차*축소 등) 및 매출액의 신뢰성 제고를 계획 중
 - * 독일은 표본 구축에 약1.6년 소요



경제통계 모집단에 대하여 발표중인 대표단



표본유지방법을 발표중인 Mr. Wein

<회의 2>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배달·인터넷소매 통계

○ 발 표 자

- 최정수 과장(서비스업동향과)
- Mr. Roßmann(독일통계청 유통·음식·숙박·관광통계과)

○ 발표 내용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소개(우리 청)
 - 개요, 연혁, 모집단·표본, 조사주기, 자료수집방법, 결과 등
- 배달·인터넷소매 통계(독일)
 - 우편주문·인터넷소매판매통계, 개념정의, 결과, 향후 계획

○ 주요 관심사 및 토의 내용

- 온라인쇼핑동향조사(한국)와 유통업·인터넷소매 통계(독일) 비교
 - (결과 비교) 독일의 온라인쇼핑 점유율(5.2%)은 한국(12.8%)에 비하여 다소 낮은 주요 이유는 가장 대규모 사이트인 아마존 닷컴의 독일 내 거래액이 소재지 문제(룩셈부르크)로 누락되기 때문
 - (작성기준 비교) 양국 모두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베이(ebay)등 플랫폼 제공 업체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는 상이*
 - * 우리나라 포함, 독일은 불포함
- 배달·인터넷소매 통계
 - (시차 문제) 독일의 경우 공표까지 18개월*이 소요되는 이유는 1)회계년도 이후 자료의 입수가 가능하고, 2)품질관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 영국, 프랑스 등 인근 국가도 대부분 조사대상 시점 기준 18개월 후 공표
 - * 연간통계. 월간통계의 시차는 30일
 - (근로자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주력 판매 경로를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업체로 등록된 사업체의 근로자 수를 파악

<참고3. 독일의 배달 및 인터넷 소매통계 주요 발표 내용>

- **(관련 통계)** 월간·연간 도소매업통계, ICT 조사 결과
- **(표본 설계)** 기업등록부의 추출틀에서 지역·분야·매출액으로 층화하여 랜덤추출*
*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연간 25만유로 이상인 경우만 추출
- **(조사 방법)** 자동차 및 소매업은 주정부통계청·도매업은 연방통계청을 통하여 조사
- **(작성 기준)** NACE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직판·온라인 경매 등을 포괄
* 47 소매 (47.91.9 기타 배달 및 인터넷판매)이며 전체 소매판매에서 배달 및 인터넷판매의 비중은 약 9%임
- **(결과 공표)** 소매통계 결과는 독일통계청의 GENESIS-Online 데이터뱅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배달 및 인터넷소매(EC) 조사결과는 월간 소매통계, 연간 소매통계 및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조사통계에 수록
 - .. 또한 연간조사결과는 조사 18개월 이후 발표하며, 소매판매는 조사 30일 이후 보도자료 발표
- **'12년 기준 주요 결과**
 - .. 상품군: 의류(21%), 전자기기 및 소프트웨어(6%), 주택가구(5%), 전자오락기구(5%) 순
 - .. 매출액 규모별: 1백만 유로 미만이 86%, 1백만~2백만유로 6%, 2백만~5백만 유로 5%, 5백만~천만유로 1%, 천만유로 이상은 2%임
 - .. 고용규모별: 1~2인 66%, 3~5인 19%, 6~19인 11%, 20인 이상은 4%임



온라인 쇼핑동향조사를 발표중인 대표단



토론에 참여중인 독일측 담당자

<회의 3> 독일 통계청의 효율화 방안

○ 발 표 자

- Mr. Sarreither (독일통계청 부청장)

○ 발표 내용

- 독일 통계제도에 대한 소개, 효율화를 위한 전략, 기본계획, GSBPM·인력 구조조정·인적자원개발 방안 등

○ 주요 관심사 및 토의 내용

- **(효율화의 추진 배경)** 연방통계청은 상위기관이자 예산 협의 대상인 연방내무부에서 최근 예산 절감 압력 지속*. 주정부통계청의 경우 각 주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분위기 상이

* 독일에서 통계는 예산기획 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음

- **(기본전략)** 통계작성 효율화를 위하여 표준화.전자정부.부서간 협력.행정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업무혁신 기본전략을 수립.운영

- GSBPM(Generic Statistical Business Process Management)을 적용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인력조정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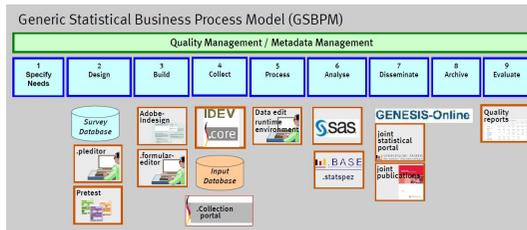
- **(인력 구성)** 연방통계청 소속 직원은 공무원 30%, 비공무원 70%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신분보장·연금 등에서 신분상 차이 발생. 대학졸업자는 20% 가량*

* 독일의 대학졸업자는 평균 10% 정도

- **(인력 조정)** 최근 10년간 단순인력은 50% 감축, 고급인력은 30%를 증원하는 인력 조정 추진. 인력은 정리해고가 아닌 정년 퇴직에 대한 미충원·명예퇴직 유도 등을 통하여 감축

* 이로 인하여 조직의 평균 연령(약 48세)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발생

- (연방·주정부 간 인사 교류) 연방-주정부통계청 간 인사 교류는 거의 없으며, 특히 연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력 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방에서 주정부로 이동하는 경우는 희박
- (통계자문위원회) 장관, 교수, 협회임원 등 약 6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1)독일 통계법의 개정 필요성, 2)행정 자료 접근권의 확장 등을 자문
- (통계법 개정) 최근 1)비용·시간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방법의 일원화(On-line) 및 2)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영구적인 주소 저장*이 가능하도록 통계법 개정
 - * 사업체(기업체)의 경우에는 주소를 모두 저장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지역단위(읍·면·동 정도)까지 저장 가능
- (GSBPM 관련 소프트웨어) Survey DB는 작성대상통계·주체·작성주기 등을 정의, .pleditor는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조건의 개념 정의, collection portal(2014년 구축)은 모든 사업체·개인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중인 Mr. Sarreither부청장



토론 중인 Mr. Sarreither 부청장

<회의 4> 양국 통계청 소개

○ 발 표 자

- 이윤정 주무관(국제협력담당관실)
- Mr. Meisenheimer (독일통계청 기획조정과)

○ 발표 내용

- 한국 통계청 소개

- 국가통계시스템, 통계청 개요, 통계시스템 발전전략

- 독일 연방통계청 소개

- 독일 연방통계청과 주정부통계청의 역할 및 조직·연방통계청 (조직, 비전, 통계제도 등) 소개

○ 주요 관심사 및 토의 내용

- 양국의 통계청 비교

- (소속)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며, 독일은 연방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상위 기관이 상이
- (지방 조직) 우리 청은 지방(청)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독일은 연방통계청 소속 지방 조직 부재. 주정부통계청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주정부별로 소속기관·통계조직 상이. 주정부 통계청 간 의견이 다양하여 협력·갈등 해결은 곤란
- (비전·목표 등) 양국 모두 고품질의 통계생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발전 전략 등을 높이 평가

<회의 5> 향후 국제협력방안 논의

○ 참 석 자

- 최성욱 대표단장, 김대호·최정수 과장, 이윤정 주무관
- Ms. Koll 양자협력담당사무관 외 2명, 통역

○ 토의 주제

- **향후 공동협력사업**
- **내년 양자회의 일정 및 주제 협의**

○ 주요 토의 내용

- **(공동협력사업)**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이라 평가하며, **향후 공동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논의**. 또한 독일은 KAZSTAT이 완료되는 **‘16년 이후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음**을 언급
- **(차기 양자 회의)** 차기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독일은 Mr. Egeler 독일 청장의 방한 계획을 제시. 의제로는 우리 청은 조직·예산 등과 관련한 독일의 운영 효율화를, 독일은 인구센서스와 인포그래픽을 제안
- * 그러나 독일은 ‘15년 Mr. Egeler 청장의 방한계획취소 및 ‘16년 양자회의 시 신임 청장의 방한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14.12.16)

<회의 6> 지방통계활동 소개

○ 발 표 자

- Ms. Bahmann (작센주정부통계청 부청장: 청장대행)
- 이윤정 주무관(국제협력담당관실)
- Ms. Gosch (작센주정부통계청 경제통계과장)

○ 발표 내용

- 작센주정부통계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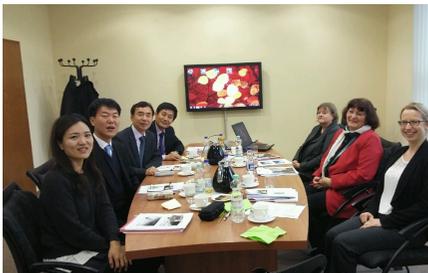
- 주정부통계청의 역할, 작센주정부통계청 개황, 조직, 주요 기능 및 GSBPM 등

- 한국 통계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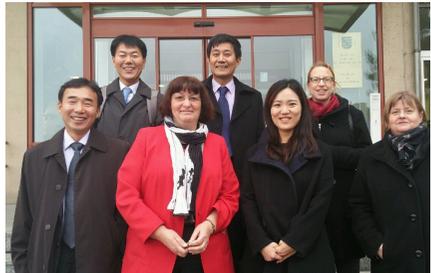
- 국가통계시스템, 통계청 개요, 통계시스템 발전전략

- 동독의 통계청 통합과정

- 독일의 주정부통계청, 통일전후 동독 주정부통계청의 업무구역 정비, 인력재편, 멘토링 방법 등



지역통계 토의



작센주정부통계청 입구에서

○ 주요 토의 내용

- 작센주정부통계청 소개

- **(법적 근거)** 독일은 지역통계를 포함한 모든 통계작성 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연방기본법·개별 통계관련 법·주정부통계법 등에 규정
- **(독일의 주정부통계청)** 주정부통계청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주정부별 상위 기관*도 상이
 - 특히, 작센주는 통계청에서 선거 관련 업무도 수행
 - * 헤센: 총리실, 잘란트: 재무부, 작센: 내무부 등
- **(통계 인력)** 우리나라는 지자체당 10~20여명의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일은 주정부 통계청 당 400여명 보유
- **(연방-주정부의 협업)** 연방-주정부통계청간 표준화된 도구·인터페이스 및 공식통계 프로세스 모델(Geschäftsprozessmodells der amtlichen Statistik: GMAS) 등을 위한 **워킹그룹(Standardisierung der prozesse: SteP)** 운영

<참고4. 작센주통계청 소개 주요 발표 내용>

- **(독일의 주정부통계청)** 독일은 13개 주정부, 3개 대도시로 구성되어있으나 공간 문제 등으로 14개 주정부통계청*이 존재
 - * 함부르크-슐레스비히홀슈타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경우 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나 관청을 공동사용
- **(작센주통계청 개황)** 작센주내무부 산하로, 1992년 1월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총 362명. 3개의 대과(일반행정·선거, 인구·사회통계, 경제통계)으로 구성
- (일반행정·선거) 주정부의회 등의 선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며, 선거구 획정(내무부 관여, Division 13)·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역할 수행
- (인구·사회통계) 지역의 인구센서스 결과 및 각종 복지통계 작성
- (경제통계) 세금청 행정자료(소득세, VAT 등)를 수집하여 주지역과 관련한 통계 작성

- 동독의 통계청 통합과정

- (구동독 통계청의 위상) 구동독 통계청은 장관급으로서 공산당 위원장 하 직속 기관
- (업무 정비) 지역사무소를 3개의 거점도시로 통합하면서 Microdata (라이프치히), 건설업통계(켄니츠), 경제·세금·사회통계(드레스덴)로 역할 분담
* 구 동독 하 내각에서 수행하던 사회통계업무는 통일 후 통계청 업무로 이관
- (위치 결정) 주정부통계청의 카멘츠* 설립과 관련한 타 지역(라이프치히, 켄니츠)의 반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정부는 기숙사 등의 거주지 마련, 인프라 구축, 부서별 순차 이동 등을 제시
* 드레스덴과 인접한 인프라가 낙후된 소도시

<참고5. 동독의 통계청 통합과정 주요 발표 내용>

통일 후 통계 행정은 ①업무구역 정비 ②인력재편 ③서독방식의 통계시스템 도입으로 진행되었으며 2~3년의 과도기 존재

- (1차: 업무구역 정비) 작센주는 50여개의 소도시에 위치한 지역사무소를 3개 거점도시*로 통합하였으며, 기존 지역사무소의 인력·조직 등은 인근 거점으로 편입
* 라이프치히(Leipzig), 켄니츠(Chemnitz), 드레스덴(Dresden)
- (2차: 주정부통계청 설립) 3개의 거점도시 사무소를 통합하여 경제기반이 취약한 소도시 카멘츠에 주정부통계청 설립
- (인력 재편) 주통계청을 작센주내무부 소속으로 편입하고, 조직·인력 설계 후 주 지방 통계청의 고위층은 서독에서 파견을 받고, 중간 간부층은 동독 통계청의 간부급을 일정한 교육 후 채용
* 하급직원은 동독통계청의 기존 직원 또는 인근지역 지원자에 적합성테스트 후 채용
- (서독방식의 시스템 도입) 동·서독간 스폰서십을 체결하여 시스템 전환 멘토링을 2~3년간 실시하고, 유로스탯을 통한 EU신규가입자 교육, PHARE-programm 등의 트레이닝 이수

Ⅲ

문화체험

□ 문화체험 I : 비스바덴(Wiesbaden)

- 일 시 : 2014. 11. 17(월), 16:00~18:00
- 장 소 : 빌헬름 가 등 비스바덴 시내
- 수행원 : Ms. Kronz 국제협력과 주무관

□ 문화체험 II : 드레스덴(Dresden)

- 일 시 : 2014. 11. 20(목), 15:00 ~ 18:00
- 장 소 : 드레스덴성당, 츠빙거궁전, 젤퍼오페라극장 등
- 수행원 : Ms. Kronz 국제협력과 주무관



비스바덴 시내



젤퍼오페라극장



드레스덴 츠빙거 궁전



드레스덴 츠빙거 궁전 앞 대표단

VI | 평가 및 시사점

□ 회의 관련 사항

- (회의 주제)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통계, 지역통계 및 향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 및 의견 교환
 - 표본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독일의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에서 시행 중인 연동표본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우리 청의 운영효율화와 관련하여 표준화·전자정부·부서간 협력·행정자료활용 중심으로 구성된 업무혁신 기본전략의 벤치마킹 필요
 - 독일에 비하여 과소한 지자체 통계 인력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
 - 동독 통계시스템 전환에 2~3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한 남북한 통일대비 연구 수행 및 사전 계획 수립 필요
 - 차기 양자회의 관련 독일 청장의 방한 및 독일의 ODA 관련 신규 사업 추진 계획('16년 이후)등을 염두한 계획 수립 필요
 - * 독일은 최근 현 청장 Mr. Egeler('15.9 퇴임 예정)의 '15년 방한 불가 및 후임청장의 '16년 방한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
- (회의 운영) 회의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질의·답변으로 의제 당 배정된 시간(약 30분)이 부족하여 계획보다 다소 지연. 향후 회의 시 질의·답변시간을 고려한 일정 계획 필요

□ 기타 사항

- (회의 개최 시기) 연방통계청의 업무시간은 9시부터 15시이며 동절기(11월)에는 4시반경 일몰이 시작되고 기후가 좋지 않으므로 추후 독일 회의 개최 시 봄·여름을 방문 시기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독일의 편의 제공) 독일은 오·만찬은 1회 실시* 및 통역, 공항 픽업, 국내 장거리 교통(기차 1등석) 등을 제공하였으며, 방독 기간 내 주무관(1인)이 대표단을 수행하는 등 대표단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
 - * 부청장 오찬: 장소- Lumen(비스바덴), 메뉴- 연어스테이크
 - 주지방통계청 만찬(드레스덴) : 장소-Dresden 1990(드레스덴), 메뉴- 일품 요리 등

참고자료 1 : 독일 통계청 개요

2 : 독일 통계청장

3 : 한-독 양자회의 현황

4 : 독일 주요 개황

참고 1

독일 통계청(Destatis) 개요

□ 독일의 통계제도: 기능적 집중형, 지역적 분산형

○ (중앙부처간) 집중형 통계제도로 대부분의 통계를 연방통계청에서 작성*

* 예외적으로 금융/국제수지통계, 노동시장통계, 일부 운수통계 등은 소관부처에서 작성

○ (지방정부간) 분산형 통계제도로 주정부 통계청에서 지역별 통계 작성

□ 독일 연방 통계청 개요

○ (명칭) 연방통계청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 (조직) 연방내무부 Federal Ministry of Interior 소속으로 청장, 차장, 8국(Department), 25과(Division)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과(Division)는 5~11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는 대과(大課) 형태

- 연방통계청은 조직적, 재정적, 인사측면에서 연방내무성의 행정 감독을 받으며, 통계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성을 가짐
- 국제협력업무는 Department B의 Division B1 소관이며, 경제통계관련 업무는 Department D(국민계정, 노동시장 및 물가)와 Department E(기업등록부, Earning, 산업 및 서비스)에서 담당

○ (인사) 연방통계청장은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및 EU 선거위원장을 겸임

- 연방통계청은 Eurostat의 국가통계 조정권 및 의결권을 보유하나, 주정부통계청은 의결권 미 보유

○ (인력) 연방통계청 직원은 약 2,398명*이며 비스마덴(1,776)·본(599)·베를린(23)에 분산 배치

* 여성 57%, 간부 중 여성 비율 36%

** 독일통계청 공무원 정년은 65세→67세로 연장(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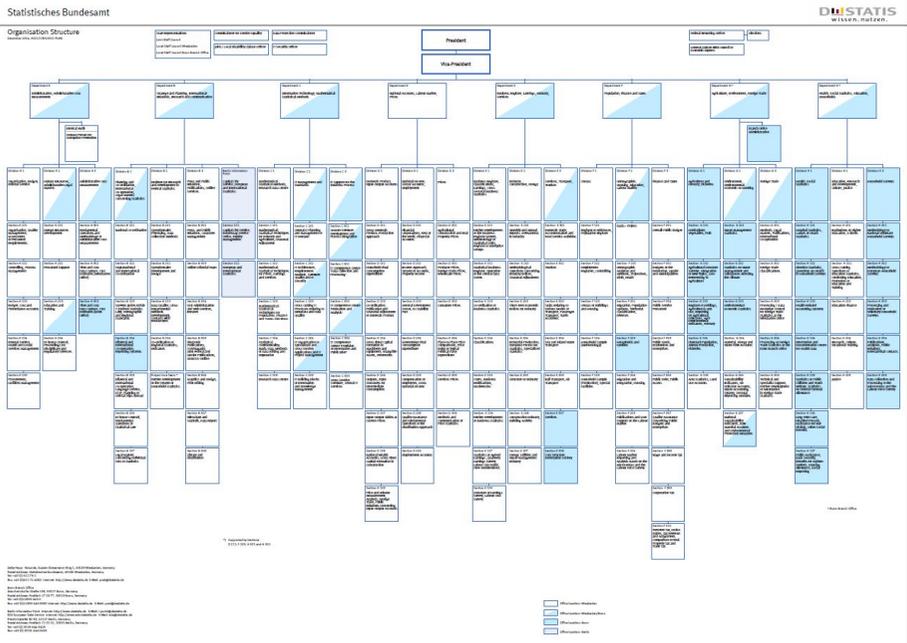
*** '14년11월 기준

- (주요 기능) 연방통계청은 방법 및 기법, 조정 및 표준화, 자료 집계, 공표(연방 차원), 국제활동 등을 담당

□ 독일의 주통계청

- 독일은 16개 주정부(Lander)에 14개 주통계청이 설치되어있으며 연방 통계청에 소속된 지방(청)사무소 조직은 별도로 없음
 - 일부 주정부(Lander)는 주통계청을 공동 운영
 - 각 주통계청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통계조직이 상이
 - 연방통계청과 각 주통계청이 공동으로 연방통계 작성
 - 주로 자료수집, 자료처리,공표(주 차원)를 담당
 - 연 1회 통계청장 회의를 통해 안건 의결 및 협력관계 구축

독일 연방 통계청 조직도





- 성 명 : Mr. Roderich Egeler
- 출 생 : 1950년(만 64세/'15년 9월 정년)
Obernkirchen(Niedersachsen)
- 학 력 : 경제학(Bonn and Cologne)

□ 주요경력

- 1978 ~ 국방부 재난관리국의 보좌관, 예산과 과장
- 1991 ~ 내무부의 예산과장
- 1993 ~ 내무부의 조달청장
- 2008. 8. 1 ~ 현재 : 통계청장으로 임명
- * 2009 ~ 제17대 하원으로 선출

참 고 3

한국-독일 양자회의 현황

【한국(대전) 회의】

차수	개최시기	독일대표단	회의주제 및 통계교류 분야
10차	'07.7.24	Mr. Radermacher 독일통계청장외 3명	2008년 한-독 통계협력 독일회의 관련 (시기 및 안건) 논의 ※2007. 7. 25.~7. 26, 한중독 세미나
12차	'09.11.10.~ 11.14	Ms. Moore 국제협력과장 외 2명	제조업통계 조사시스템 통계교육제도(e-러닝, EU통계교육시스템 등) 공식통계자료의 연구활용 현황 등

【독일(비스바덴) 회의】

차수	개최시기	한국대표단	회의주제 및 통계교류 분야
11차	'08.6.5~6.6	통계청장 외 3명	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한국의 통계발전계획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개선점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관련 사항 제13차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안건
13차	'10.8.29~9.4	조사관리국장 외 4명	양국의 인구센서스 현황 및 경험 공유 통일 독일의 통계분야에서의 노력 양국 교육협력사업 및 기타 협력사업 논의
14차	'12.10.29~11.3	조사관리국장 외 2명	양국의 농림어업총조사 경험 공유 등록센서스 방법론 및 독일의 등록센서스 process 지역통계현황 및 활성화 방안 향후 양자협력방안 논의

참고 4 독일과의 협력사업 추진 개요

□ 카자흐스탄 국가통계시스템 강화프로젝트(KAZSTAT) 공동협력사업

- 사업목적: 카자흐스탄 국가통계 효율성 개선을 위한 통계청 및 관련 정부부처의 고품질 통계자료 작성 역량 강화
- 기 간 : 5년 (2012~2016)
- 집행기관 : 카자흐스탄 통계청(추진기관은 세계은행 입찰 선정)
- 참여형태 : 6개국 통계청* 공동 컨소시엄
 - * 6개국은 독일, 한국,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러시아이며 독일이 컨소시엄 대표 역할
- 규 모 : 23백만불 (세계은행 장기차관: 20백만불, 자체예산: 3백만불)
 - 우리청 관련 예산: 약 960천불
- 사업내용: ①제도 및 통계시스템 ②ICT 시스템 ③인적자원 ④통계인프라와 기준·방법론 ⑤ 이용자와 응답자 관계 ⑥주요통계 방법론 및 작성법 등 6개 사업부문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직원훈련**
- 우리 청의 역할: 현지 컨설팅 및 한국 연수
 - (정보국) ICT 시스템 및 물적 인프라 개선 (웹포탈개선 포함) 부문 리더역할로 참여
 - (교육원) 교육훈련 전략 시스템 도입 부문 개별 컨설턴트로 참여

□ 몽골 국가통계시스템 강화사업(MONSTAT)

- 사업목적: 몽골통계청의 역량 강화
- 기 간 : 5년 (2010~2014, 우리청은 2012년 3월 종료됨)
- 참여형태 : 독일 통계청과 공동 컨소시엄
- 규모 : 3.1백만불 (세계은행 기금, 장기차관 등)
 - 우리청 관련 예산: 약 10만불
- 내용 : 몽골 국가통계 전반을 개선하는 포괄적 프로젝트
 - ※ 사업부문 : ①통계정책, 제도 및 생산조직 개선 ② 통계인프라 강화 ③ 통계수준 제고 (SNA, CPI, 센서스 등) ④ **IT 인프라 및 장비 현대화** ⑤ 프로젝트 관리
- 우리 청의 역할: 몽골 국가통계 IT부문 인프라 개선 및 컨설팅, 직원연수 등

참고 5

독일 약황

【 일반사항 】

-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건국일 : '49.5.23
- 수도 : 베를린(Berlin/345만명)
- 인구 : 8,115만명('13년)
- 면적 : 357,112km²(한반도의 1.6배)
- 기후 : 온화 다습(연 평균기온 : 9℃)
- * 11월 평균 기온(비스바덴): 최저 5℃, 최고 12℃ 내외
- 주요도시 :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 인종 : 게르만족(91.5%), 터키인(2.4%), 기타
- 언어 : 독일어
- 종교 : 개신교(31%), 카톨릭교(32%), 이슬람교(4%)
- 한국과의 시차 : 한국이 8시간 빠름
- 국제전화번호 : +49

【 정치현황 】

- 정 체 : 연방공화제(16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주요인사
 - 대통령: 요하임 빌헬름 가옥(Joachim Wilhelm Gauck)
 - 총 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기민당)
 - 외교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의 회 : 총 631석, 13.9.22 총선 실시
 - 기민/기사연합(CDU/CSU) 311석
 - 사민당(SPD) 193석
 - 좌파당(Linke) 64석
 - 녹색당(Gruene) 63석

【 경제현황 】

- GDP : 3.6조 US\$('13, EU잠정치)
- GDP 성장률 : 0.5%('13)
- 1인당 GDP(PPP) : 42,694불('13)
- 교역규모('13): 2.7조US\$
 - 수출 : 1.5조US\$, 수입 : 1.2조US\$
- 화폐단위 : 유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공식관계
 - 상호 국가 승인 1955.12
 - 1958.8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3) : 15,273만불
 - 수출 : 79억US\$ (자동차, 무선전화기, 선박 등)
 - 수입 : 193억US\$ (자동차, 직조화면보드제 자동차 부품 등)
- 교민현황 : 33,774명('13)
- 주요 인사교류
 - '93. 3 Kohl 총리 방한
 - '95. 3 김영삼대통령 방독
 - '98. 9 Herzog 대통령 방한
 - '00. 3 김대중 대통령 방독
 - '00.10 Schroder 대통령 방한
 - '02. 6 Rau 대통령 방한
 - '05. 4 노무현 대통령 방독
 - '10. 2 Kohler 대통령 방한
 - '10.11 Merkel 총리 방한
 - '11. 5 이명박 대통령 방독
 - '14. 3 박근혜 대통령 방독
- 우리 청과의 양자협력
 - '97.11 한-독일 양자통계협력약정 체결 (Minutes, 합의의사록)
 - 현 약정의 유효기간은 없음